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 ②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③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④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01 ① 문맥에 적절한 어휘

- ① 문맥상 첫째문장에는 ‘취소(取消)’, 둘째 문장에는 ‘연기(延期)’가 적절하다.
• 지연(遲延: 遲 더딜/늦을) 지/延 늘일 연)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 연장(延長: 延 늘일 연/長 길 장)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오답 풀이]

- ②
• 타락(墮落: 墮 떨어질 타/落 떨어질 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 몰락(沒落: 沒 빠질 몰/落 떨어질 락)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짐.
- ③
• 근본(根本: 根 뿌리 근/本 근본 본) ㉠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 근간(根幹: 根 뿌리 근/幹 줄기 간)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참고] ‘근간(根幹)’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뜻하고, ‘근본(根本)’은 뿌리를 뜻하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뜻한다. 두 말은 ‘바탕’을 뜻하는 맥락에 쓰이며, ‘중심’을 뜻할 때 주로 “근간”이, ‘본질’을 뜻할 때 주로 ‘근본’이 쓰인다.

- ④
• 금방(今方)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후에
• 방금(方今)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

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02 ③ 한글맞춤법-띄어쓰기

- ③ 안 되어도 → 안되어도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안되다’는 동사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물어+도(보조사) 보았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② 매일같이, 긴 선생, 그만두었다
• ‘같이’가 체언 뒤에 쓰여 ‘비슷하게’, ‘~처럼’의 뜻인 경우 부사격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서로 함께’라는 의미의 경우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그만두다’는 합성동사로서 한 단어이다.
- ③ 안 되어도 → 안되어도

[참고] 안되다

• 동사 ‘안되다’

- ㉠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 형용사 ‘안되다’

- ㉠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예 그것참, 안됐군.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역까지 배웅했다.
㉡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예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 참고로, 부정부사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다. 부정하는 말 ‘안’이 오면 ‘안 되다’로 적는다.

- ④ 할지
어간 뒤에 ‘-ㄹ지’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데 의존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집을 떠나 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와 같이, ‘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문맥에서 쓰인다.

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03 ④ 높임 표현

- ④ ㄷ의 ‘주+시시오’에서 ‘-십시오’는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서, 상대높임의 하십시오체이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ㄹ은 ‘모시고’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할머니를’을 높인 객체높임법이다.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ㄱ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임 주격조사 '-께서'와 서술어에 높임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였다.
ㄴ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임 주격조사 '-께서'와 '덕(집을 놀여)', 서술어에 높임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였다.
②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은 상대높임이다. 이는 종결어미로 알 수 있다.
ㄱ은 종결어미 '-습니다(하십시오체)', ㄴ은 '-버니다(하십시오체)', ㄷ은 종결어미 '-십시오(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모두 상대높임을 하였다.
③
ㄴ은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택(宅)' ㄷ은 객체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가 아닌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②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③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④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04 ② 현대문법-품사의 통용

- ②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단어의 품사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명사이지만,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에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이다. 첫 문장 '비교적'은 뒤에 용언 '편리한'을 수식하는 부사, 둘째 문장의 '비교적'도 뒤에 용언 '낮은'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참고]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단어의 품사

- ㉠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명사.
예) 적극적인 사고
㉡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에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예) 적극적 사고
㉢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에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
예) 비교적, 가급적

[오답 풀이]

- ① 첫째 문장의 '이'는 격조사가 결합하지 못하고 뒤에 체언 '사과'를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둘째 문장은 '이+보다(부사격조사)'의 구성으로 격조사가 결합하였으므로 대명사이다.
③ '대로'는 체언 뒤에 오면 보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면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첫째 문장에서는 '도착하+(관형사형어미)'이므로 뒤에 '대로'는 의존명사이다.
둘째 문장은 '큰 것(명사)+대로'의 구성으로, 체언 뒤에 쓰인 경우이므로 보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④ 첫째 문장은 '잘못+이(서술격조사의 어간)+버니다(종결어미)'의 구성으로서, 격조사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이다.
둘째 문장의 '잘못'은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뒤에 용언 '적용하여'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冢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

05 ② 문맥에 적절한 한자성어

- ② '어로불변(魚魯不辨)'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성어이다. 문맥상 '부당 이득을 취하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사재기'를 뜻하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이 적절하다.

[한자성어 풀이]

- ① 권토중래(捲土重來 : 捲 말 권/土 흙 토/重 무거울 중/來 올 래)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 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② 어로불변(魚魯不辨 : 魚 물고기 어/魯 노나라 로/不 아닐 불/辨 분별 할 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 목불식정(目不識丁), 속맥불변(菽麥不辨), 일자무식(一字無識)
→ 매점매석(買占賣惜 : 買 살 매/占 점령할 점/賣 팔 매/惜 아낄 석)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둬. '사재기'로 순화. 매점(買占)과 매석(賣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③ 오불관연(冢不關焉 : 冢 나 오/不 아닐 불/關 관계할 관/焉 어찌 연) ㉠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사람이 상태나 현상 따위를 상관하지 아니하다.
④ 양두구육(羊頭狗肉 : 羊 양 양/頭 머리 두/狗 개 구/肉 고기 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 겉과 속이 서로 다름. ㉢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 [유] 구밀복검(口蜜腹劍), 동상각몽(同床各夢), 동상이몽(同床異夢), 면종복배(面從腹背), 소리장도(笑裏藏刀), 소면호(笑面虎), 소중유검(笑中有劍), 양질호피(羊質虎皮), 표리부동(表裏不同)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짐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짐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쩍을 못 했다. 밖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06 ① 글의 표현상 특징

① 첫째 단락에서는 난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의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표현은 역설법이다.

[오답 풀이]

- ② 글쓴이의 체형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한 교훈적인 수필이다.
- ③ 이 글은 자신이 직접 난초를 키우며 집착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을 제시하여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난초’를 의인화 한 것은 아니다.
- ④ 소유에 대한 주제를 감정을 절제한 담당한 어조로 체험한 바를 서술하였다. 또한 독자그이 반성을 촉구하는 글도 아니다.

※출전: 법정, ‘무소유(無所有)’

1. 해제: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한 교훈적인 수필이다. 인간의 고통과 번뇌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하며, 이 소유욕을 버리면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2. 작품 정리
 - 1) 갈래: 경수필
 - 2) 성격: 체험적, 교훈적, 사색적
 - 3) 제재: 소유와 무소유, 난초
 - 4) 주제: 무소유의 참된 의미와 정신적 자유의 소중함
 - 5) 특징
 -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를 담당한 어조로 쉽게 제시함.
 - 인용과 예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역설적 논리로 이야기함.
 - 불교적 인생관이 잘 반영됨.
3. ‘난초’의 상징적 의미
난초는 글쓴이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집착하게 하고 구속하는 존재로서 ‘소유욕’이나 ‘집착’의 대상을 상징한다.

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산은 냇 山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 晝夜에 흐으니 냇 물이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굶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 ② 冬至人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靑山은 내 쫓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할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노고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랴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터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허노라

07 ② 고시조 표현상 특징

②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동짓날 기나긴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으로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라 할 수 있다.

[작품 해설]

① 황진이

- 주제 : 인생무상,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

[현대어 해석]

산은 옛날의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주야(종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인걸(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② 황진이의 ‘연정가(戀情歌)’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절절한 그리움

③ 황진이의 ‘연정가’

- 주제 :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 정서 : 그리움

[현대어 풀이]

청산은 변함없는 나의 마음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푸른 시냇물은 임의 정과도 같다.

물이야 흘러가더라도 산이야 변할 수 있으랴.

그러나 흐르는 물도 자기가 놀던 청산이 그리워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④ 황진이의 연정가

- 주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

[현대어]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으랴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줄고는

이에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8 ③ 현대문법 - 용언의 활용

③ ‘휘두르다’와 ‘자르다’는 ‘휘두르+어=휘둘러’, ‘자르+아=잘라’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ㄹ’로 줄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 ‘누르다(황금이나 낫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는 ‘누르+어=누르러’와 같이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 ‘오르다’는 ‘오르+아=올라’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ㄹ’로 줄고, 어미 ‘-아’가 ‘-라’로 바뀌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②

•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는 ‘이르+어=이르러’와 같이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 ‘구르다’는 ‘구르+어=굴러’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ㄹ’로 줄고, 어미 ‘-아’가 ‘-라’로 바뀌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④

• ‘부르다’는 ‘부르+어=불러’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르’가 ‘ㄹ’로 줄고, 어미 ‘-아’가 ‘-라’로 바뀌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 ‘푸르다’는 ‘푸르+어=푸르러’와 같이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르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 하려고 했다.

09 ④ 비문학-내용 확인하기

④ 마지막 단락에서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떼어 내의 그의 개인적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작중 인물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는 ④의 설명을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에서 ‘영웅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 능력을 가진 인물들’에서 알 수 있다.
- ② 첫째 단락에서 알 수 있다.
- ③ 둘째 단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
- ② 論議 論制 論據 論搏
-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
-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

10 ① 한자 어휘

① 문맥에 따라 적용해 보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論議)’의 대상이며, 각기 ‘논거(論據)’를 밝히고, 상대로 하여금 ‘논박(論駁)’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논제(論題)’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이다.

- 논의(論議: 論 논할 논/議 의논할 의)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 논거(論據: 論 논할 논/據 근거 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의 근거
- 논박(論駁: 論 논할 논/駁 논박할 박)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논제(論題: 論 논할 논/題 제목 제) 토론의 주제나 제목

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 ②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③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④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② 조건에 맞는 표현

② ‘자리 양보’라는 공중 도덕, 두 문장은 대구의 형식이며, ‘자리 양보’가 ‘행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문’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 ①은 대구의 표현이 없다.
- ③은 대구의 형식은 쓰였으나 긍정적 효과가 없다.
- ④는 행위의 긍정적 효과가 없다.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12 ④ 한글맞춤법- 구개음화

제시 글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잔디’와 ‘버티다’는 원래 ‘잔디’와 ‘버티다’로서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다.
- ②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口蓋音化)하여 [ㅈ, ㅊ]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히어 ‘ㄷ, ㅌ’으로 적는다. 실질 형태소의 경우는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이다.
- ③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는(종속되는) 요소인 것이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13 ① 문맥에 적절한 우리말 어휘

① ‘채’는 ‘-은/는 채로’의 구성으로 쓰는 의존 명사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의존명사는 ‘체’가 와야 한다. ‘척’도 같은 뜻의 의존명사다. ‘채’와 ‘체’의 쓰임이 헷갈릴 때는 ‘체’와 ‘척’이 같은 의미란 것만 기억하면 된다. ‘척’으로 바뀌 말이 되면 ‘체’, 말이 안 되면 ‘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오답 풀이]

- ②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가리키는 말은 ‘한참’이다. 명사 ‘한참’은 주로 ‘한참이다’ 꼴로 많이 쓰인다.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이란 뜻이다.
따라서 제시 문장은 ‘벼가 한참 무르익고~’, ‘그는 한참 바라보더니~’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③ ‘두껍다’는 ‘두께가 크다, 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크다. 어둠이나 안개, 그늘 따위가 짙다’ 등을 뜻한다. 그리고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시 문장은 ‘친분이 두텁다’, ‘야구 선수층이 두껍다’로 표현해야 한다.
- ④ ‘벗겨지다’는 ‘벗다’의 사동사 ‘벗기다’에, ‘벗어지다’는 ‘벗다’에 피동의 뜻을 가진 ‘-어지다’가 붙은 말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한 경우라면 ‘벗겨지다’라고 쓸 수 있지만,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면 ‘벗어지다’라고 써야 옳다.
따라서 제시 문장은 ‘머리가 벗어지다’, ‘껍질이 벗겨지다’로 표현해야 한다.

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②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③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④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14 ③ 현대문법- 단어의 형성

③ ‘덮밥’은 ‘덮(용언의 어근)+밥(명사)’으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회덮밥’은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웃(용언의 어근)+음(명사화 접사)=파생어음
- ② 결(명사)+눈(명사)=결눈(합성명사)+질(접미사)=파생어
• -질: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결눈질, 손가락질, 입질, 주먹질, 뒷걸음질.
- ④ 단일어는 복합(複合)이 없이, 단일 조어(造語)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어미는 형태소에서 제외함. ‘책’, ‘하늘’, ‘먹다’ 등이다. 하나의 어근과 어미로 이루어지는 용언도 단일어로 본다.

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시설의 필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15 ② 고쳐쓰기

② 제시 글의 주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문장은 산업 폐기물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고장에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접속어 ‘그리고’는 앞뒤의 관계가 엇갈리거나 상반되지 않고 순순히 어어지도록 쓰는 접속어이다. 제시 글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앞뒤의 관계가 상반되거나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어주는 역접 접속어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등이 적절하다.

③ ‘~에 다름 아니다(~に他ならない)’는 일본어 번역투 표현이므로, 가능한 한 ‘~이다’와 같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 일본어를 번역한 투의 문장은 우리말답지 않으므로 바로잡아 써야 한다. ‘~에 있어서, ~에 다름 아니다, ~에 의하여, ~에 의하면, ~에 의, ~에로의, ~(으)로서의, ~(으)로서도, 서로의’와 같은 표현이 모두 일본어 번역 투이다. 또한, ‘-의’를 남발하는 것도 일본어의 영향이 크다.

④ 일반적으로 ‘명사+은/는’ 주어에는 ‘명사+이다’라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흔히 ‘~ 것(사실, 점, 일, 말)은 ~점(것, 사실)이다’와 같은 주술 구조가 쓰인다.

제시 문장의 경우에도 주어가 ‘~ 사실은’ 이므로 서술어도 ‘~는 점이다/사실이다/것이다’라는 형식을 갖추어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뽀여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

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16 ④ 현대소설-표현상 특징

④ 이 작품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으로서, ‘무진기행’의 명산물인 안개에 대한 묘사부분이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여러 비유법을 사용한 주관적 묘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안개’를 ‘여귀의 입김’에 직접 맞대어 표현한 직유법의 표현이다. 질게 끼어 있는 안개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을 지닌 형체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첫 문장을 보면 무진의 명산물이 ‘안개’라고 나온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출전: 김승옥, ‘무진기행’

1. 해제: 이 작품은 한 인물의 귀향 체험을 통하여 일상과 꿈, 현실과 몽환이라는 대립적 가치를 설정하여, 일상을 벗어나 꿈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감각적인 문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작품 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 2) 배경: 1960년대 무진(霧津)
 - 3) 시점: 일인칭 주인공 시점
 - 4) 성격: 서정적, 몽환적, 회고적, 독백적
 - 5) 주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진정한 자아의 욕망을 저버리고 현실에 타협함으로써 일상을 유지하는 현대인의 자기 반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허무주의적 의식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 ②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③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④ 인간의 기억과 상상

17 ③ 비문학-주제

③ 제시 글은 중간에 역접 접속어 ‘그러나’를 기준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 부분은 독서가 인간의 능력을 기우고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며,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제들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이는 ‘독서의 필요성’이다.

뒷 부분은 책 읽기가 손쉬운 일이 아니며,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독서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다.

문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 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①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이를테면 | 역시 | 결국 |
| ④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18 ① 비문학-적절한 접속어

접속어는 앞, 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의 앞 문장은 역사의 연구, 뒤 문장도 역사학에 대한 설명이므로 ㉠에는 앞의 내용을 바꾸어 말할 때 또는 짧게 간추려 요약할 때 쓰이는 접속어인 ‘즉, 다시 말해’ 등이 적절하다.

㉡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령’이 적절하다.

㉢은 앞의 내용을 바꾸어 짧게 간추려 요약하고 있으므로 ‘결국, 요컨대’ 등이 적절하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19 ② 현대시-작품의 감상

② 작품 속에 ‘첫사랑’이라는 제시되어 있으나 운율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③ 시인은 ‘물’과 ‘불’이 지니는 소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본원적인 한(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으로 대표되는 ‘물’의 이미지가 청각적 심상을 통해 소멸성을 드러내는 한편, ‘해 질 녘 울음이 타는’으로 대표되는 ‘불’의 이미지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소멸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④ ‘~고나, ~것네’와 같은 민요조의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예스런 정감을 살리고 애수 어린 분위기를 조성하여긴 여운을 남긴다.

※출전: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강’

- 해제: 이 작품은 노을이 물든 가을 강을 바라보면서 애상감에 젖는 화자를 통해 인생의 유한성으로 인한 서러움과 한(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작품 정리
 - 성격 : 애상적, 전통적
 - 제재 : 가을 강
 - 주제 : 인생의 유한성과 한(恨)
 - 특징
 -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가 조화를 이룸.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주제를 심화함.
- ‘서러움’의 정서

시적 화자는 산등성이에서 저녁 노을이 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서러움을 느낀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쓸쓸함과 친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상념 속에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이다. 이 시는 이런 화자의 섬세한 정서의 흐름을 강물의 흐름과 교차시키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2017. 10. 2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죽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④ 고전소설-내용확인하기

④ 남대문 안의 포수가 길동에게 총을 쏘았지만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기동은 수레에서 천천히 걸어서 내려 온다. 즉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셋째 단락을 보면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에서, 마지막 단락 ‘~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죽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다.
- ② 마지막 단락, 길동이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며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않으리라”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③ 포수들이 길동에게 총을 쏘 때 ‘비 우(雨) 자 세을 써 공중에 날리니 총구에 물이 가득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길동이 죽지법을 사용하기도 한다.